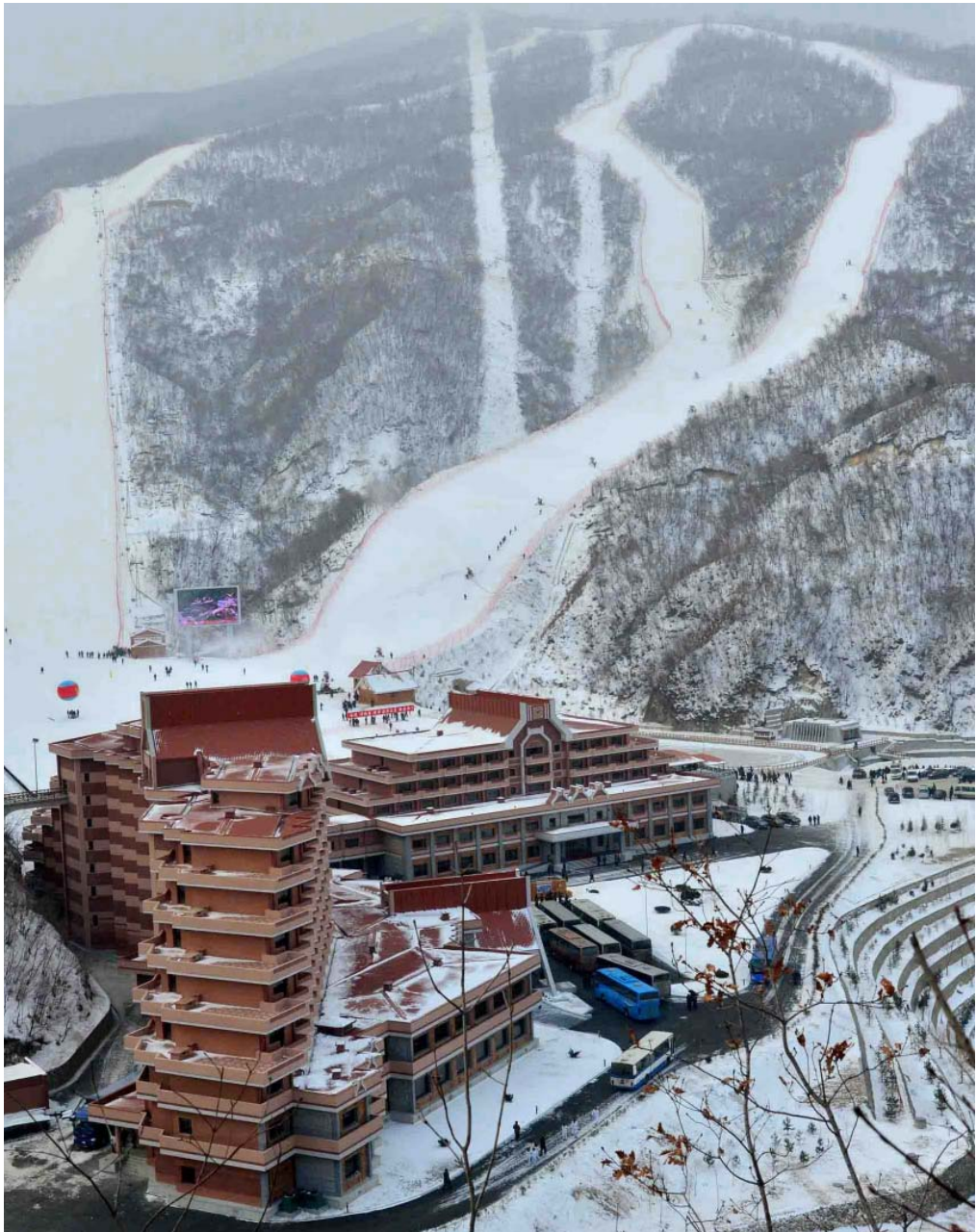


새해가 왔다.  
조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 
그 기상은 더욱 역세어지고  
밝아온 한해에 대한 희망과  
신심이 온 강산에 차넘치고  
있다.

《김정은 제1위원장의  
령도력과 체제안정성이  
다시 한번 확증되었다.》,  
《북이 지식경제강국, 사회  
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  
를 가하고있다.》, 《북의  
사회적분위기가 확연히 달라  
지고있다.》

새해 주제103(2014)년을



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 
사람들의 발걸음에 희망찬  
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 
가득 실려있다. 나라와  
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  
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  
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민  
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는것  
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이 나  
라 인민이다.

어제는 오늘과 래일을 비  
취주는 력사의 거울이기도  
하다.

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파  
라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  
는 비약과 기적을 일으켜 강  
성변영의 휘황한 전망을 열  
어놓은 지난해의 자랑찬 결  
실에서 사람들은 보다 새로  
운 기적과 비약으로 환희로  
울해의 전망을 보는것이  
다.

지나해에 정초부터 온 한  
해 연 100여차례 걸쳐 건설  
장들과 공장, 농촌을 비롯한  
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  
시며 대비약의 불길을 끊임  
없이 지퍼주신 경에하는  
원수님의 령도따라 전체 인  
민은 주제조선의 영원한 승  
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기념  
비적창조물들과 사회주의문  
명국의 래일이 비긴 건축물  
들을 일떠세웠고 경제강국건  
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례  
없는 혁신적성과들을 달성하  
였다.

자주전온 나라와 민족의

맞는 공화국을 바라보는 남  
조선 각계의 시각이다.

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많  
은 나라들에서 수년째 경제  
침체에 빠지고 그로 인해 나  
날이 더해만가는 국가재무  
위험으로 새해에 대한 전망  
은 암울하다. 생활난에 쪼  
들려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  
는 투쟁이 도처에서 그칠새

없고 사회적불안정이 휩쓰는  
것이 2014년에 들어선 행성  
의 모습이다.

그러나 동방 조선의  
2014년의 아침은 류다르게  
밝고 생기와 약동이 차넘치  
고있다. 거리를 지나가는 사  
람들의 발걸음과 얼굴을 보  
아도, 매 가정의 창문안을  
들여다보아도 비판과 어둠

의 빛이라고는 찾아볼수 없  
다. 비록 아직은 모든것이  
넉넉치 못해도 머지않아 모  
두가 만복을 누릴 그날이 온  
다는 신심과 락관, 새해에  
는 또 어떤 크나큰 변화와  
승리의 기적이 마련될것인  
가 하는 기대와 희망이 사람  
들의 가슴가슴을 부풀게 하  
고있다.

조선의 2014년은 최대의  
정치적안정속에 찾아왔다.  
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 
있지만 정치적으로 제일 안  
정되고 사회가 령도자를 중  
심으로 단합된 사회는 바로  
우리 공화국이다. 공화국의  
력사는 장장 60여년, 그 력  
사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평  
온하고 령도자와 군민이 사  
상의지적으로, 도덕의리적  
으로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  
결의 최전성기가 지금 공화  
국의 이 땅우에 펼쳐져있다.  
바람다고 해서 누구나 이룰  
수 없는 일심단결은 공화  
국의 최대의 힘이고 2014년  
을 활력있게 떠밀어갈 선군  
조선의 추진력이다.

공화국의 2014년은 인민의  
기쁨과 행복넘친 노래소리에

실리어 밝아왔다.

공화국의 지난 한해는 인  
민의 기쁨넘친 웃음의 한해  
였다. 도처에 통라인민유원  
지, 문수물놀이장, 미림승  
마구락부, 옥류아동병원,  
류경원을 비롯한 행복의 창  
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들  
의 즐거운 웃음소리, 기쁨  
의 소리가 온 한해 강산을  
가득 채웠다. 나날이 변모  
하고 흥하는 현실을 보며 이  
땅의 남녀로소 누구나 기쁨  
을 금치 못하고 인민의 만복  
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 
그날이 결코 먼 앞날이 아  
나라는것을 가슴뿌듯이 체  
험하였다.

지금 환넉넉인 세계적  
인 마식령스키장은 개장  
되어 사람들을 기다리고있  
다. 령길이 너무 높고 험  
해 말들도 쉬어간다는 마식  
령지구가 인민의 새로운 문  
화휴식터로 전변될줄은 이  
나라 인민들은 얼마전까지  
만 해도 생각지 못하였었  
다. 그러나 지금은 모든 꿈  
이 하나둘 현실로 전환되고  
있다.

창조와 혁신으로 지나

온 2013년도 좋지만 새해  
2014년은 또 얼마나 더 눈  
부시고 희망넘친 한해인가.  
모두가 락관하고있다. 희망  
에 넘쳐 한해를 내다보며 자  
신들의 더운 피, 애국의 정  
열을 위대한 이 조선 위해,  
2014년에 바치려는 열의로  
가슴들을 불태우고있다.

하다면 희망과 락관의  
2014년 아침은 어떻게 밝아  
오게 되었는가.

돌아해보면 한 나라, 한  
민족에게 있어서 사변이나  
번영과 같은것은 절로 오지  
않는다.

력사의 기적은 민족의 천  
만년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  
한 예지와 만능의 실력, 강  
철의 의지를 지닌 결출한  
령도자만이 안아올수 있다.  
조선에는 인민의 모든  
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 
절세의 위인, 창조의 거장  
이 계신다. 그이는 인민  
의 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  
시다.

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 
국가,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  
도하시는 지난 2년간 탁월한  
령도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

시고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 
력사를 이 땅우에 수놓으시  
였다.

우리모두 팔을 끼고 어  
깨를 걸고 이 준엄한 시련  
을 이겨내자며 앞장서 걸으  
신 선군장정의 길에서 역경  
이 순경으로, 화가 복으로  
전환되고 《마식령속도》도  
창조되어 력사에 류례없는  
기적이 일어났다. 불과 한  
해사이에만도 평양이 물라  
보게 달라졌으며 인민들의  
웃음소리 드들은 사회주의  
선경이 나라의 이르는 곳마  
다에 펼쳐졌다.

한해는 365일이지만  
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 
2013년의 어느 하루도 편히  
쉬지 못하고 인민을 위한  
현지지도의 강행군을 끊임없  
이 이어가시었다. 인민을 위  
해 통라인민유원지를 건설해  
주시고도 무엇이 부족하신듯  
그것과는 또 대비가 안되는  
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건설  
을 발기하시어 쉬임없는 현  
지도도로 불과 몇개월사이에  
희한한 물놀이장을 일떠세우  
신 그 하나만으로도 인민을  
위한 그이의 정치가 얼마나

위대하고 그 령도의 손길이  
얼마나 세련되고 뛰어난것인  
가를 군대와 인민은 가슴뜨  
겁게 체험하고있다.

온 한해 인민을 위한 행  
복의 창조물들을 무수히 일  
떠세우시고도 한해가 저푸는  
12월의 마지막 날들도 완공  
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여  
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기  
쁨속에 그려보시던 경에하는  
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.

조선의 2014년은 이렇게  
밝아왔다. 절세위인이 한해  
의 마지막 령도자육을 남기  
신 마식령스키장의 드넓고  
시원하게 뻗어내린 은빛주로  
처럼 눈부시고 기세차게 폭  
풍처럼 내달릴 선군조선의 비  
약의 2014년이다.

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 
세계를 펼쳐 천만인민을  
매혹시키고 온 세상을 통  
체로 안겨주시는 크나큰  
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 
결출한 령도자를 모시여  
우리 공화국은 2014년에도  
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것이  
며 우리 조국에는 새로운 변  
혁과 기적들이 펼쳐지게 될  
것이다.

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 
력사적인 신년사와 함께 선  
군조선의 장엄한 2014년의  
대진군은 시작되었다.

본사기자 리경월



세 계 일 류 급 으 로 건 설 된 마 식 령 스 키 장



## 창창한 래일을 확신한다

새해를 맞고보니 자연히  
생각이 깊어진다. 지나온 나  
날에 대한 추억에서만이 아  
니다.

사람은 늙으면 추억속에  
산다고 했지만 요즘은 자꾸  
만 과거보다도 부장변영할  
조국의 래일과 나자신의 밝  
은 앞날에 대하여 그려보며  
살고있다.

사실 하늘처럼 믿고 따르  
던 아버지장군님께서 천만  
뜻밖에 서거하시었을 때 나  
는 지구가 통채로 깨어지는



이런것을 보면서 인  
민을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 
파다 줄 공화국의 정체를 온  
몸으로 느꼈었다. 조국해방  
전쟁승리기념관은 내부와 외  
부 할것없이 세상의 그 어  
느 기념관도 견주지 못할 처  
상의 수준이었다. 미림승마  
구락부에 가서는 지도 모르  
는 사이에 청춘시절로 되돌  
아가 말을 타고 났다 달려보  
기도 하였다.

더욱 놀라운것은 다른 나  
라같으면 몇년은 실히 걸릴  
거창한 창조물들을 우리 조  
국에서는 1년도 안되는 눈감  
짝할 사이에 일떠세웠다는  
사실이다.

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 
는 말도 있지만 경에하는  
원수님의 령도따라 약동하  
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 
조국에서는 1년도 못되는 사  
이에 강산이 천지개벽되고  
있다.

눈부신 조국의 발전모습은

금할수 없었다.

여세의 운명을 한몸에  
안고있고 바라는 모든 꿈  
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시  
는 경에하는 그이께서 계시  
여 조국의 오늘도 좋지만 래  
일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겠  
구나 하는 확신으로 무릎을  
쳤다.

참으로 경에하는 원수님과  
함께 온 길을 새겨보아도  
걸어갈 앞길을 내다보아도  
태양같은 그 미소로 가득차  
있는 우리 조국이다.

하기에 뜻깊은 새해를 맞  
는 이 시각 나의 가슴은 승  
리와 영광의 영원한 기적이  
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  
를 충직하게 받들어 통일애  
국투쟁을 더욱 파감히 벌  
려나갈 신심과 결의에 넘  
쳐있다.

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 
제1부위원장 김철성

## 약동하는 조국의 현실을 보며

1967년에 처음 조국을 방  
문한 때부터 나는 거의 해  
마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 
데 그 회수는 수십여차례나  
된다.

하지만 매년 조국에 올 때  
마다 나는 조국의 발전상에  
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한다.  
이번에는 그 놀라움이 더욱  
컸다. 불과 1년도 되나마나  
한 사이에 평양이 이렇게 달  
라질수도 있는가하고 참관  
전기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  
을수 없었다.

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,  
문수물놀이장, 은하과학자  
거리, 미림승마구락부, 옥류  
아동병원, 세계적인 마식령  
스키장...

지난해 4월에 왔을 때만  
해도 볼수 없었던 기념비적  
창조물들이었다.

그렇듯 방대한 규모에 그  
처럼 희한하고 최상의 수준  
에서 꾸러진 문수물놀이장에  
서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소

리 넘쳐나는것을 보면서 인  
민을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 
파다 줄 공화국의 정체를 온  
몸으로 느꼈었다. 조국해방  
전쟁승리기념관은 내부와 외  
부 할것없이 세상의 그 어  
느 기념관도 견주지 못할 처  
상의 수준이었다. 미림승마  
구락부에 가서는 지도 모르  
는 사이에 청춘시절로 되돌  
아가 말을 타고 났다 달려보  
기도 하였다.

더욱 놀라운것은 다른 나  
라같으면 몇년은 실히 걸릴  
거창한 창조물들을 우리 조  
국에서는 1년도 안되는 눈감  
짝할 사이에 일떠세웠다는  
사실이다.

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 
는 말도 있지만 경에하는  
원수님의 령도따라 약동하  
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 
조국에서는 1년도 못되는 사  
이에 강산이 천지개벽되고  
있다.

눈부신 조국의 발전모습은

잡차뜨까에 살고있는 우리  
조선동포들에게 무한한 기  
쁨과 희망을 안겨주고있다.  
모여앉으면 경에하는  
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 
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  
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로 꽃  
을 피우고있다. 새해에도 나  
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향하  
여 눈부시게 비약하는 조국  
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 
조국을 위한, 동포들을 위한  
애국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  
려나가겠다.

새로조선공민중앙협회  
부회장 리채선



## 승리와 비약의 더 큰 한해

을 받는 지도자가  
김정은최고사령관이다.》  
(재미동로 로길남)

《한없이 뽐들면서라도  
지가 넘치고 끝없이 겹쳐  
하시면서도 천하를 움지길  
영웅남자다운 기상이 넘치는  
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에서  
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 
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다  
시금 보게 되었다. 또 한분  
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우  
리 민족의 밝은 앞날을 굳게  
확신하게 되었다.》(재일동  
로 고경아)

《백문이 불여일견이라  
는 말이 있지만 한두해동  
안에 너무도 빨리 많은것

이 달라진 조국의 현실에  
서 김정은원수님의 정치경  
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눈  
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 
실감하게 되었다. 그분은  
희세의 영걸이시다.》(재중  
동로 김남희)

《나의 조국에는  
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  
다. 그이의 탁월한 령도, 한  
없는 진취력, 자애로운 미소  
는 그대로 조선의 찬란한 미  
래이다. 그 미래에는 인민의  
화합과 단결은 갈수록 굳건  
해지고있다. 머지않아 세  
계적인 강국으로 솟아오를 조  
국의 앞날을 축복한다.》(재  
로동로 김 에두아르트 니콜

라에비치)

《김정은각하를 모신것은  
조선인민의 크나큰 행운이  
다. 조선인민은 그이의 령도  
밑에 2014년을 승리와 비약  
의 더 큰 해로 빛낼것이다.》  
(스웨리에조선위원회  
위원장 마르틴 뵤체르)

《조선에서는  
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대  
와 인민을 이끌고계신다. 만  
약 새 조선전쟁이 일어난다  
면 지난 전쟁과 같은 결과만  
을 낳지 않을것이다. 지난  
조선전쟁이 미국의 내리막길  
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  
조선전쟁은 미국의 완전종  
말을 가져올것이다.》(인디